

하루를 시작하며



김 문 정
시인

인상 깊었던 시작, 영화 허스토리(HERSTORY)는 히스토리에 획 하나를 더 그어 ‘허스토리’라고 쓴다. 관부재판이 모티브다. 일본 재판부와 맞선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을 기록한다. 오랜 시간 쌓인 한과 가슴앓이를 풀어내고 돌아오는 길, 노래라고 천연덕스럽게 부르는 일본군가가 애달프다. 조선의 소녀가 거기 있었으므로.

최근 일본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는 ‘표현의 부자유전’이 중단됐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한 예술의 검열이라니! 쪼잔하고 후진적인 결정으로 표현의 부자유는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선명해지고 오히려 작품의 이미지는 또렷해졌다. 거칠게 잘린 단발머리, 무릎 위에 꼭 쥔 손, 발꿈치 들린 맨발, 왼쪽 어깨에 얹은 새, 소녀상 아래 바닥에 있는 할머니 모습의 그림자, 옆에 놓인 빈 의자까지. 보이지 않아도 다 보인다.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의 단절과 설움, 분노와 의지까지도 담아 평화의 새 한 마리 어깨에 와 쉬게 하고 아픈 역사와 지금의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임을. 왜? 내 집에 켜 등(燈)을 이웃에서 꺼라 말라 하는가. 수요집회는 1400차 이상 넘겼고 ‘내가 증거’라고 외치시던 할머니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신다. 반성 없이 미래 없다. 강제적이고 조직적인 동원은 없었다고? 자발적으로 당신들은 거기 있었는가. 그녀들의 이야기는 역사다. 잊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세우고 빈 의자에 나란히 앉을 일이다.

아베정권은 우리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재판결과에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로 경제보복 중이다. 우리정부의 대화노력에 듣는 척도 않더니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군사기밀정보는 공유하잖나. 슬쩍, 민간교류는 있어야지 않겠냐는 아베와 한국에 후쿠시마 산(産) 수출 안 해도 750만 한국관광객이 와서 먹어준다고 호언장담하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일제라 빙글대며 ‘노노재팬’을 비웃던 일 외무장. 불매가 곧 식을 거라고 뽀뽀하고 전형적인 현한 역사날조방향을 일삼으며 원화를 굶어가던 왜구 회사들. 오만과 뻔뻔함의 극치다. 더 말할 것 없이, 이제와 새삼스럽지만 도처에 들어앉은 일본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지를 정하면 될 일이다. 이제 불매운동은 습관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해왜란생활백서’에는 불매운동은 이제야 사지 않겠다는 것,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것, 불매상품을 선택하는 것. 불매운동은

이미 산 것을 욕하는 것, 한국에 오지 말라는 것, 불매상표를 강요하는 것이라 한다. ‘넋 놓고 ABC마트도 모른다’, ‘병 주고 카베진 준다’, ‘사게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밀 빠진 도시바에 물 붓기’ 등 속담 패러디들이 통쾌하게 한 방이다. 피하지 않고 싸우자니 우리도 코피를 쏟을 수밖에 없어 쓴웃음이 난다. 생업이 달린 이들은 머리까지 깨질 일이라 마냥 좋진 않다. 그래도 불매(不買)뿐 아니라 불매(不賣)까지도 감행하는 미닝아웃을 높이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 전 방위적으로 꼼꼼하게 탈(脫)일본하려 한다는 것. 결국 경제적 자립을 하리라는 것. 한국의 ‘노 재팬’이 일본의 ‘노 아베’가 되게 하리라는 것. 입술을 앙다문다. 전에 없이 깨알 같은 글씨들을 훑는다. 아! 그리고 보니 이른 봄에 산 핸드믹서도 일제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려나. 나도!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열린마당

전농로의 가을은 봄보다 중후한 맛이 있다



고 미 영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

깊어가는 전농로의 가을과 함께 버스킹 공연이 시작된다. 작지만 알찬 문화공연으로 꾸며질 소규모 공연은 누구나 한번쯤 가을의 전농로와 왕벚나무의 낙엽을 떠올리기에 좋을 것 같다.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작지만 아름다운 선사할 버스킹 공연을 위해 올해 초부터 고심 했다.

갈색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위한 공연으로 매월 1회 주민센터 앞 무대를 배경으로 공연행사를 개최한다. 순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8월말 공개모집으로 9월, 10월, 11월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주변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확대 운

영하게 된다.

새롭게 시도되는 소규모 문화공연 ‘가즈아! 전농로’ 버스킹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관광객은 매월 5일까지 삼도1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삼도1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연할 수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중후한 맛이 있는 가을에 전농로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

전농로에는 왕벚나무가 있어 봄에는 벚꽃이 화려하고 가을에는 낙엽길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전농로 문화거리 육성을 위해 순수 재능기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즈아! 전농로’ 버스킹 공연으로 걷고 싶은 거리, 가보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전농로 활력화를 통해 지역상권도 살리며, 지역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의 방문으로 원도심 공동화 문제도 해결하고, 여기에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생기 넘치는 문화욕구 해결을 위해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내년 4·3 관련 예산 확보 ‘사할’

“국회 절충에 역량 총동원”

○…제주자치도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4·3복합센터 설계비와 유해발굴 사업비 등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역량 총동원을 다짐.

내년 4·3 관련 정부 예산안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보다 8% 많은 52억4500만원 증액됐지만 일부 4·3 숙원사업 미반영에 유가족들은 침울.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3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소진기자

“올해 그랜드세일은 포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올해 계획했던 ‘그랜드세일’(관광지·숙박업소 등의 요금을 인하하는 행사)을 포기하기로 결정.

앞서 제주도 관광협회는 지난 1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랜드세일을 포함해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미 제주관광 상품의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여서 더 이상 할인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는 그랜드세일을 못하게 됐다”고 전인. 이상민기자

이 교육감 “나를 사랑하라”

○…제주도교육청이 학생가장 127명에게 성금 381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서한문을 발송.

이 교육감은 서한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찾아올 행복은 막을 수 없다”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더 많은 희망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언급.

이 교육감은 이어 “방탄소년단의 ‘IDOL’ 가사 중 ‘You can’t stop me lovin’ myself’를 제일 좋아한다”며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 표성준기자

사설

이러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물거품 되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발의한지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답답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10월 22일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는 10월 말부터나 이뤄질 전망이다. 특

히 제주 최대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다뤄질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법안 논의 여건도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상임위에 소속된 강창일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에서 예결소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안소위원장도 더불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게 되면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돌고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년은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4·3특별법 개정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제주도와 4·3단체들이 힘을 모아 4·3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제주 체육계 고질적 병폐 용납해선 안된다

내년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국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선거 이용 차단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는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려했던 제주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체육회에서 회장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체육회 사무처는 지난달 27일 회장 출마가 거론되는 전 상임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체육회 간부가 “선거를 도우지 못할 거면 중립해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추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원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A감독의 직무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다음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촉결정을 내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체육계는 지난 20여년 동안 이미 태권도와 축구 등 일부 산하 경기단체들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체육인간의 파벌 싸움을 목격해왔습니다. 경기단체가 지역 선수 육성과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입·직원간의 출세기와 계파 싸움에 몰두하면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병폐인 것입니다. 체육회와 경기단체가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스포츠단체를 이용한 정치적 활동 배제라는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의 목적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도 선거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부 고

김종훈(롯데건설 수석) 어머니 **홍양송씨 효인(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3일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19년 9월 4일(수)
- ▶ 발인일시: 2019년 9월 5일(목) 오전 6시
- ▶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 ▶ 장 자: 가족선영

남 편 김옥천

아 들 김중훈 며느리 이윤희

딸 김애생 사 위 오재윤

애순

애자 김동수(98)

애경 조창래

애실 오기영

애란 최종욱

※ 연락처 : 김종훈 010-8890-1026
이윤희 010-9803-1026

부 고

양시진(前 메디슨 전무) 어머니 **진주강씨 순여(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3일 12시 2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19년 9월 5일(목)
- ▶ 발인일시: 2019년 9월 6일(금) 오전 7시
- ▶ 발인장소: 안덕면 사계리 산방복지회관
- ▶ 장 자: 사계리 마을 공동묘지

아 들 양시진 며느리 김현숙

시경 홍희림

딸 양옥형

옥란 사 위 신선일

옥록

옥녀 나형구

채은 조영희

정화 안영철

손 자 양윤수

양 휘

※ 연락처 : 양시진 010-4128-0213

양시경 010-2898-8624

신선일 010-3697-8545

나형구 010-3696-0039

조영희 010-3696-4098

안영철 010-8957-434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육형(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4일

부 인 김 소 애

딸 이 혜 순

이 혜 련

이 혜 영

사 위 김 광 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공성(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4일

아 들 문군석 며느리 김옥심

기석 이성욱

딸 문금란

경희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지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g(25개~35개) 4만원

10kg(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한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